

국어 영역

▣ 화법

1. 말하기 방식 및 태도 파악

정답 ③

대담 중에 진행자가 글로벌 매너에 대한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지는 않았다. 책에서 읽은 영국 여왕의 일화를 언급하였을 뿐이다.

- ① 진행자는 자신이 책에서 읽은 내용이라고 밝힌 후, 영국 여왕의 일화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독서를 통해 얻은 배경지식을 대담에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진행자는 대화에서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에 대한 청취자의 질문을 소개하고 있다.
- ④ 외교관은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등의 발언을 통해 상대방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이는 상대를 대하는 성의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 ⑤ 외교관은 식사 중 입안에 음식을 넣은 채 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사례로, 상대의 배려에 대해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해야 할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2. 이어질 발언 내용의 추리

정답 ④

[C]는 대화에서 상대를 부르는 호칭에 관한 사례를 설명한 내용이다. 여기서 외교관은 상대를 정중하게 부르며 ‘Mr.’를 붙여 “Mr. Johnson”, “Mr. Thomas” 등으로 호칭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므로 상대가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호칭으로 불러 주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겸손의 미덕을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이 국제 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군요.”라고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토의의 흐름 파악

정답 ②

교사는 학생들에게 당부했던 내용들을 환기하면서 학교 측의 결정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고 있지는 않다.

- ① 학생 대표는 화장실 사용이라는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겠다고 한 학교의 발표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사회자는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 때문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기로 했다는 교사의 발언을 요약한 후, 학생 대표에게 추가 의견 제시를 제안하고 있다.
- ④ 학생 대표는 교사가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 규칙을 정하고 이를 어기는 학생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학교의 발표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강화하고 있다.
- ⑤ 교사는 규정을 정하고 그것을 어기는 학생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있다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직접 그와 관련된 규정과 제재 방안 등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4. 뒷받침 의견의 이해

정답 ②

학교 측은 학생들이 화장지를 낭비하고 화장지를 화장실 외부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가 당부한 사안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화장실 바닥에 사용하지 않은 화장지가 널려 있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②이다.

5. 의사소통 방식의 이해

정답 ⑤

<보기>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갈등을 줄이는 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방안을 적용한 발언은 ⑤이다. ⑤는 학교 측이 고심 끝에 의견을 제안했다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자신이 학교 측의 의견을 왜곡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작문

6. 작문의 특성 파악

정답 ③

(가)를 통해 글쓴이가 친구들이 청소년 성인병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성인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글을 통해 글쓴이는 청소년 성인병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실현에 따른 사회적 효과를 언급한 내용은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방안도 아니다.

- ① 글쓴이는 청소년 성인병 문제를 교지에 게재해 학교에서 공문화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하고 있다. 이는 작문을 통해 공동체의 담론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학생의 초고’를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자료를 토대로 글감과 관련된 내용의 생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④ (나)에서는 청소년 성인병의 원인을 먼저 제시한 후, 예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원인을 먼저 언급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 구성 방법을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다.
- ⑤ (가)에서 학교 친구들이 청소년 성인병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성인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하였다. 이 같은 목적을 고려해 초고에서는 청소년 성인병에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작문이 집필 목적을 고려해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나타낸다.

7.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②

<보기>의 ②는 비만인 사람의 나트륨 섭취량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는 것과 나트륨이 성인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나트륨 섭취가 즉석식품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둘째 문단에 식습관 측면의 성인병 발병 원인으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추가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 ① ①은 초·중·고교 학생들의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가 청소년 성인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없다.
- ③ ②는 비만인 청소년의 나트륨 섭취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많고, 나트륨이 성인병을 유발하며, 청소년의 나트륨 섭취가 즉석식품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소년에게 운동과 취미, 여가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 ④ ①, ②의 자료에서는 청소년 성인병의 발병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⑤ ①은 청소년의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청소년의 성인병 발병률 추세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8. 고쳐쓰기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⑤

㉞은 청소년에게 성인병이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 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다. 청소년에게 성인병이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 되기 때문에 ㉞에서와 같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㉞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고쳐쓰기 방안이 아니다.

- ① ㉠의 ‘인식해 왔다’는 주어부인 ‘일반적으로 ‘성인병’으로 분류되는 심장 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은’과 자연스럽게 호응하지 않는다. ‘인식되어 왔다’로 수정해야 한다.
- ② ㉡의 ‘성인병이’는 뒤의 ‘이어지며’와 호응하지 않는다. 이는 서술어 ‘이어지며’에 맞지 않는 조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성인병이’의 ‘이’를 ‘으로’로 고쳐야 한다.
- ③ ㉢의 ‘넘어’와 ‘초과한’은 의미가 중복된다. 둘 중 하나를 삭제해야 한다.
- ④ ㉣은 앞뒤 문장을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성인병을 예방하는 방안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가 아니라 ‘그리고’를 사용해야 자연스럽다.

9. 소재 활용 방안의 이해

정답 ④

글쓴이는 일상에서 떠나고 싶다는 마음에 환상선 기행을 하게 된다. 추진역 간이역에서 잠시 정차한 상황에서 송아지를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 글쓴이는 정답고 한가로운 시골의 정취를 느끼고 있다. 송아지를 보고 글쓴이가 고향에 대한 정다운 추억을 연상하지는 않았다.

- ① 배낭은 글쓴이로 하여금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소재이다.
- ② 풀꽃은 글쓴이가 평소 주목하지 않았던 소재라 할 수 있다.
- ③ 장터는 도시에서 보기 어려운 정취를 보여 주는 소재라 할 수 있다.
- ⑤ 간이역은 글쓴이에게 여유와 휴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라 할 수 있다.

10. 조건에 맞는 글쓰기

정답 ②

학생이 점검한 내용에서는 비유를 통해 간이역이 사라지는 아쉬움을 전하고 간이역 보존의 필요성을 이끌어 내는 문장을 추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②에서는 ‘정들었던 친구가 떠나는 것처럼’이라는 비유 표현을 통해 간이역이 사라지는 아쉬움을 나타냈고, 아름다운 휴식을 제공하는 간이역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간이역 보존의 필요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

■ 문법

11. 파생어의 문법적 변화 이해 [정답] ①

‘뿔개’는 동사 어간 ‘뿔-’에 접미사 ‘-개’가 결합해 만들어진 말로, 동사 어간이 접미사를 만나 명사로 품사가 바뀌었다. ‘지혜롭다’는 명사 ‘지혜’에 접미사 ‘-롭다’가 결합해 형용사가 된 말이다. 즉 ‘뿔개’와 ‘지혜롭다’는 접미사가 결합해 파생되면서 품사가 달라지는 문법적인 변화가 일어난 단어들이다. ‘바느질’은 명사 ‘바늘’과 접미사 ‘-질’이 결합한 말로, 품사는 변화 없이 명사이다. ‘업히다’는 동사 어간 ‘업-’과 접미사 ‘-히-’가 결합한 말로, 품사는 변화 없이 동사이다. 따라서 ‘바느질’과 ‘업히다’는 품사가 달라지는 문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단어임을 알 수 있다.

12.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해 [정답] ④

‘꽃’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이지만 ‘꽃이’는 ‘꽃’의 종성인 ‘ㅈ’이 뒤의 ‘이’와 만나 연음이 되면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단어와 단어가 만나는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단어와 단어가 만나는 과정을 통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이해라고 할 수 없다.

- ① ‘꽃’, ‘앞’은 각각 [꼐], [압]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② ‘꽃이’는 ‘꽃’의 받침인 ‘ㅈ’이 뒤에 이어지는 조사 ‘이’에 연음되어 [꼬치]로 발음된다. 또 ‘앞에’에서 ‘앞’의 ‘ㅍ’도 뒤의 ‘에’에 연음이 되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 ③ ‘꽃망울[꼐망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이머[압니머]’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첨가, 비음화가 일어나고 있다.
- ⑤ ‘앞에[아페]’는 ‘앞’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져서 연음이 되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지만, ‘앞이머[압니머]’는 뒤에 모음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어의 뒤에 실질 형태소가 이어질 때에는 뒤에 모음이 오더라도 연음되지 않고 앞 단어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음을 알 수 있다.

13. 한글 맞춤법 이해 [정답] ④

㉔에서 ‘나갔다’는 ‘나가다’가 기본형인 단어이다. 따라서 어간의 끝 ‘ㄷ, ㅍ’가 줄어들 적이라는 환경에 맞지 않는 단어라는 점에서 ㉔에 추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① ‘둥근’과 ‘어지시다’는 기본형 ‘둥글다’, ‘어질다’에 다른 어미가 결합하면서 ‘ㄷ’이 탈락하는 용례이다.
- ② ‘나아’와 ‘지으니’는 기본형 ‘나다’, ‘짓다’에 다른 어미가 결합하면서 ‘ㅌ’이 탈락하는 용례이다.
- ③ ‘둥그라면’, ‘하얏’은 기본형 ‘둥그랗다’, ‘하얏다’에 다른 어미가 결합하면서 ‘ㅎ’이 탈락하는 용례이다.
- ⑤ ‘가까워’, ‘쉬웠다’는 기본형 ‘가깝다’, ‘쉽다’에 다른 어미가 결합하면서 ‘ㅌ’이 ‘ㄷ’로 바뀌는 용례이다.

14. 사동문의 특성 탐구 [정답] ③

㉔의 사동문 ‘철호가 동생을 놀이터에서 울렸다.’

를 ‘-게 하다’와 결합한 사동문으로 바꾸면 ‘철호가 동생을 놀이터에서 울게 했다.’가 된다. 두 문장은 모두 철호가 동생을 울게 만들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㉔의 사동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동양사 책을 읽히셨다.’를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동양사 책을 읽게 하셨다.’로 바꾸어도 두 문장의 의미는 다르지 않다. 따라서 ㉔, ㉔이 사동문의 서술어를 ‘-게 하다’로 바꾸면 문장의 의미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㉔, ㉔의 주동문에 사용된 ‘숨었다’와 ‘울었다’는 모두 자동사이다. ‘숨겼다’와 ‘울렸다’는 모두 자동사에 사동 접미사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 ② ㉔의 주동문에 있는 주어 ‘아이가’는 사동문에서 부사어 ‘아이에게’로, ㉔의 주동문에 있는 주어 ‘우리는’은 사동문에서 부사어 ‘우리에게’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 ④ ㉔의 주동문에 있는 ‘숨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지만 사동문의 ‘숨겼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㉔의 주동문에 있는 ‘입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지만, 사동문의 ‘입혔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㉔의 주동문에 있는 ‘울었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지만, 사동문의 ‘울렸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㉔의 주동문에 있는 ‘읽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지만, 사동문의 ‘읽히셨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⑤ ㉔~㉔의 사동문은 모두 주동문에 없던, ‘내가’, ‘어머니가’, ‘철호가’, ‘선생님께서’와 같은 주어 사용되었다.

15. 중세 국어의 이해 [정답] ①

㉔은 현대어 풀이를 볼 때, ‘말할 것이니’인데 이는 세존의 일을 말할 것이라는 화자의 말을 나타낸 것이므로 여기에 ‘일’을 듣는 대상을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② ㉔에서 ‘-시-’는 ‘세존’을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이다.
- ③ ㉔에는 부사격 조사 ‘에’가, ㉔에는 부사격 조사 ‘예’가 사용되었다. ㉔과 ㉔의 형태가 다른 것은 ㉔의 앞에 ‘ㅣ’나 ‘ㅣ’ 계열 이중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 있기 때문이다.
- ④ ㉔은 ‘쇼셔’에서 ‘소서’가 되므로 현대 국어의 표기를 참조할 때, 현대 국어에서는 단모음화가 진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⑤ ㉔의 ‘ㅌ’은 현대 국어의 ‘의’처럼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한다.

■ 독서

[16~19] (인문)

유재하, 「설득의 킬링 포인트」
이 글은 대화에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마음 읽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방법으로 잘 듣기와 태도 읽기를 제시하고 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서술 과정에서는 예시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16. 개괄적 정보 확인 [정답] ①

2문단에서, 소통은 곧 발신과 수신에 교환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은 발신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잘 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아무리 발신을 잘 해도 상대방의 의견을 잘 수신하지 못하면 설

득은 고사하고 오해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발신을 잘 한다고 해서 수신에도 능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 ② 4문단에서, ‘내 말을 잘 들어 준 사람’에 대해서는 그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호감이 생긴다고 하였다.
- ④ 6문단에서, DVD를 통한 태도를 읽는 눈을 기르는 훈련을 반복하면 태도를 읽는 눈이 밝아진다고 하였다.
- ⑤ 5문단에서, ‘대화 중 상대를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었느냐’라는 질문으로 조사를 한 결과 언어적 표현(7%)보다는 비언어적 표현(93%)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비언어적 메시지를 읽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17. 구체적 상황에 적용 [정답] ②

리처드 파인먼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식 참석을 거부한 것은 스웨덴까지 갔다 오게 되면 시간 손실이 많아 연구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파인먼이 시간 손실을 매우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정확히 간파한 파인먼의 아내는, 수상식 불참을 이례적으로 본 기자들이 취재차 물려와 빼앗기는 시간과 수상식에 참석함으로써 빼앗기게 되는 시간을 비교할 때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 손실이 덜하다는 논리로 파인먼을 설득하였다. 파인먼을 설득할 수 있는 킬링 포인트를 정확히 포착하여 설득에 임하였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시간을 덜 빼앗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노벨 위원회 측의 메시지는, 어쨌든 수상식에 참석하게 되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어서 파인먼에게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다.

18. 논지의 흐름 이해 및 적용 [정답] ③

[A]의 중심 내용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잘 수신함으로써 킬링 포인트, 즉 숨겨져 있는 설득 지점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B]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듣고 있다가 적절한 곳에서 맞장구를 쳐 주고 그 화제가 무르익을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식 질문을 하는 예시를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잘 수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A]와 [B]를 이어 주는 문장으로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잘 수신할 수 있을까.” 정도가 적절하다.

- ① 마음 읽기의 두 번째 단계는 5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 ④ [B]는 상대방의 의견을 잘 수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이다. ‘발신을 잘 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이러한 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⑤ ‘상대방의 수신 상태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19. 전제의 추리 [정답] ②

㉔의 앞부분에서 대화 중에 비언어적 표현을 잘 활용한 것이 정치인들의 손동작임을 소개한 후, 그 사례로 케네디의 자신감 넘치는 손동작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케네디의 손동작을 클린턴과 오바마가 벤치마킹하였다고 하였는데, 만약 케네디의 손동작이 그의 정치적 입지 구축에 보탬이 되지 않았다면 클린턴과 오바마가 케네디를 따라 하지 않았을 것이다.

[20~23] (사회)

구본일, 「계약 회사가 부추기는 현대인의 건강 염려증」
이 글은 신약 가격 책정과 제약 판매 전략에 대한 제약 회사들의 숨은 의도를 짚어 보고 있다. 신약 개발로 인해 인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크지만, 제약 회사들이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약을 권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글쓴이는 제약 회사에 의해 야기되는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20. 표제와 부제의 이해 [정답] ③

이 글은 제약 회사의 신약 가격 책정과 판매 전략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내용은 모두 제약 회사가 불평등 구조를 야기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표제는 포괄적으로 '계약 회사에 의해 야기되는 불평등 구조'라고 하고, 부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신약 가격 책정과 판매 전략을 중심으로'라고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

21. 외적 증거에 따른 내용 이해 [정답] ⑤

<보기>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A]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구조를 다루고 있다. <보기>의 관점으로 [A]에 드러난 불평등 구조를 이해한다면, 시장의 논리로만 신약 가격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⑤처럼 제약 회사의 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신약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이는 기업의 투자를 약값으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을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① <보기>에 따르면 신약 가격을 정할 때 회사는 투자한 만큼 이윤을 얻어 내려는 시장의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 ② <보기>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신약 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불평등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 ③ <보기>에 따르면 제약 회사는 약과 관련한 문제를 사회 복지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보기>에 따르면 제약 회사는 수익을 최우선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22. 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 ⑤

<보기>는 제약 회사가 약의 판매, 즉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상인 증상을 비정상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이익을 남기려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 회사가 '비정상'으로 분류한 질병의 치료약들이 약효가 떨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23. 어휘의 이해 [정답] ⑤

'문제점을 없애다'에서 '없애다'는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버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해소하다'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해지하다'는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가 말소되다'의 의미이다.

[24~26] (예술)

박일호, 「다원주의적 미술」
이 글은 1940년대와 1950년대를 풍미했던 추상 표현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출현한 미니멀 아트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1970년대 미술의 다원주의적 경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970년대 미술에서는 비물질화, 자연으로의 복귀, 인간적인 것의 회복 등을 지향했다. 이 글에서는 미술의 비물질화와 관련해서는 개념 미술을 들어 그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자연으로의 복귀와 관련해서는 대지 미술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간적인 것의 회복과 관련해서는 프로세스 아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 경향은 1970년대의 다원화된 미술 작품 경향을 보여 준다.

24.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 ①

- ① 1문단에서 추상 표현주의가 작가의 주관적인 내면 세계와 감성적 표현을 강조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표현 기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② 1문단에서 1970년대에는 1960년대와 달리 다원주의적 미술 작품이 창작되었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1문단에서 지나친 주관주의적 경향으로 그림을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산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추상 표현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4문단에서 대지 미술이 자연환경의 창조적 응용을 강조한 방식으로 작가의 생각을 표현했으며, 이러한 대지 미술의 경향이 미술사적으로는 추상 미술이 멀리했던 자연으로의 복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⑤ 2문단에서 미술의 비물질화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경향으로 개념 미술을 언급하고 있다.

25. 대상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파악 [정답] ②

㉞은 어떤 대상을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어떻게 나타내느냐보다 예술가의 작품에 대한 사고 자체를 중시한다. 이는 미술의 비물질화 경향을 보여 준다. ㉞도 개념 미술의 비물질화 경향과 상통한다. 대지 미술 작품은 자연에 일시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감상자에게 사진이나 기억만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미술 작품이 감상자의 정신 속에 존재한다는 입장을 전제한다. 즉 ㉞과 ㉞은 공통적으로 미술 작품의 비물질적인 특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① ㉞은 추상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㉞에 대해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㉞은 작가의 주관적인 내면세계와 감성적 표현을 강조한다. ㉞은 이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등장한 것으로 작가의 주관에 작품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 ④ ㉞은 작가의 주관적인 내면세계와 감성적 표현을 강조해 작품이 작가에 의해 임의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㉞이 예술 작품이 작가에 의해 임의로 창작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을 작품으로 형상화하고자 한 것은 ㉞이다.

26. 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 ④

<보기> 작품의 작가는 실제 의자를 바닥에 놓고, 벽의 한쪽에는 의자 사진을,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의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붙여 놓았다. <보기>의 작품은 개념 미술에 해당하는 작품인데, 개념 미술의 작품은 대상을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어떻게 나타내느냐보다 예술가의 작품에 관한 사고를 중시한다. 직접 보는 대상이나 예술적 형식보다 그것을 통해 환기되는 사고나 의미를 미술 작품의 본질로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 매체가 작품의 본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개념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① 개념 미술에서는 대상보다 그것을 통해 환기되는 사고나 의미를 중시한다.
- ②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보기>는 개념 미술 작품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작가의 사고를 작품을 감상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③ 개념 미술에서는 작품이 감상자의 정신 속에 존재한다고 본다.
- ⑤ 개념 미술에서 작품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조형 방법이 아니라 작가의 사고이다.

[27~30] (과학)

요시다 쿠니히사, 「신경 흥분 전달 구조」
이 글은 신경계의 단위로 자극과 흥분을 전달해 사람이 근육 등을 움직여 활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뉴런의 활동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뉴런은 신경 세포체, 가지 돌기, 축삭 돌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의 작용을 중심으로 신경의 흥분과 자극을 전달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이를 통해 신경의 자극 및 흥분의 전달은 사람의 움직임이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27. 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 ③

2문단을 보면 신경의 흥분은 자극의 강도와 관계 없이 일정한 크기로 이루어지며 자극이 강해지면 흥분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빈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2문단에서 축삭 돌기는 다른 세포에 전기 신호로 자극과 흥분을 전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② 4문단에서 뉴런의 축삭 돌기 말단은 다른 뉴런의 가지 돌기와 이어져 있고 그 접점을 시냅스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④ 4문단에서 시냅스에는 작은 틈이 있기 때문에 신경 충격을 통해 전기 신호를 전달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흥분을 전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⑤ 4문단에서 시냅스의 신경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가 다수 존재하고 그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축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8. 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 ⑤

평소에 ㉠은 음전하를 띠고, ㉡은 양전하를 띤다. 하지만 세포에 자극이 가해지면 양전하인 나트륨 이온이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경로를 통해 세포 안쪽으로 유입되어 <보기>에서처럼 ㉠은 양전하, ㉡은 음전하를 띠게 된다. 이러한 전위 역전을 '활동 전위'라고 한다.

- ① ㉠은 평소 음전하를 띠지만 현재 양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자극을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② ㉡에서는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전위 역전이 일어난다.

- ③ ㉔은 축삭 돌기를 덮은 막인 말미집이다. 신경 충격에 따른 형태 변화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
- ④ ㉔은 말미집과 말미집 사이의 잘록한 부분인 랑비에 결절이다.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의 신경 말단에서 방출된다.

29. 반응의 적절성 이해 [정답] ②

<보기>에 제시된 복어의 독은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물질인데 이는 신경의 나트륨 경로를 차단시켜 신체 마비 현상을 일으킨다. 2문단을 보면 축삭 돌기의 세포막이 자극을 받아 흥분하면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경로가 열리고 나트륨 이온이 농도의 경사에 따라 세포막에 유입되어 활동 전위가 일어난다. 따라서 나트륨 경로가 차단되면 활동 전위 자체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②가 가장 적절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30. 사전적 의미의 이해 [정답] ③

㉔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범위에 흩어져 퍼져 있음.'이다. '각각 갈라져서 늘어섬. 또는 그렇게 함.'은 '분열'의 의미에 해당한다.

■ 문학

[31~33] (고전 산문)

작자 미상, 「춘향가」
이 글은 판소리 사설로, 제시된 부분은 춘향이와 이 도령이 만나기 전 상황이 나타난 장면이다. 그네 타는 춘향이의 아름다운 자태에 반하여 이 도령이 방자를 시켜 춘향이와의 만남을 청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해학적인 분위기, 창을 위한 4음보의 리듬 등 판소리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창과 아니리를 반복하면서 내용의 흥미를 높이는 효과를 주고 있다.

31.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 ③

방자는 이 도령과 대화를 나누고, 향단이와 춘향이하고도 대화를 나누는 인물로, 제시된 장면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인물이다. 제시된 대목에서 방자가 이 도령에게 춘향이에 대해 말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은 향단이가 아니라 춘향이다. 이런 춘향이의 반응에 대해 방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춘향이가 초래한 것이라고 하며 반박하고 있다.

32. 판소리의 특징 이해 [정답] ④

이 글은 판소리 사설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판소리를 구경하고 있는 관객들에게 특별히 말을 거는 장면은 없을 뿐더러, 관객의 반응을 유도하는 장면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 ① 창을 하는 데 적합하도록 3, 4자로 구성된 어구가 반복되는 부분이 자주 나온다.
- ② 울긋불긋, 허허, 움쭉움쭉 등 다양한 의태어와 의성어가 사용되었다.
- ③ 창자는 서술자의 역할과 등장인물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 ⑤ '설부화용, 이비의 정열행' 등 한자어도 많이 쓰이지만, '까바쳤구나, 미친 놈' 등의 비속어도 사용되고 있다.

33. 자료의 이해 및 적용 [정답] ④

<보기>는 판소리의 창, 아니리, 그리고 도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이 요소들이 판소리의 긴장과 이완의 상태를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창자가 창을 하다가 도섭을 활용하여 인물의 말을 직접 인용하게 되면, 관객의 정서가 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완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창은 서사를 지연시키면서 정서적 긴장을 유발하고 아니리는 정서를 이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을 하다가 도섭을 활용하는 경우 이완되었던 정서에 다시 긴장이 일어난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판소리를 할 때 창자는 창과 아니리를 반복하게 되고 고수는 북으로 장단을 맞춘다.
- ② 방자가 도련님의 배경을 말하며 다양한 산과 다양한 벼슬을 언급하는 부분은 창으로 불린다.
- ③ 아니리 부분은 다소 이완된 분위기를 띠기 때문에 방자, 춘향, 향단이가 대화를 나누는 부분은 이완된 분위기에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 ⑤ 제시된 대목은 창과 아니리의 교차 반복으로 제시된다. 창과 아니리의 반복은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해 준다.

[34~36] (현대 소설)

김동리, 「역마」
이 글은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역마살을 타고난 인물을 통해 한국인의 운명관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온갖 떠돌이 인생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화개 장터'를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그러한 주제의 개연성을 강화하고 있다. 옥화는 아들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계연과 인연을 맺어 주려고 하지만 계연이 옥화의 이복동생, 즉 성기의 이모임이 판명된다. 이에 따라 결혼으로 성기의 역마살을 극복하고자 했던 옥화의 의도는 빗나가게 되고, 성기는 결국 역마살을 운명으로 수용하고 길을 떠나게 된다.

34. 배경의 의미와 기능 [정답] ①

'화개(花開)'라는 지명은 꽃이 활짝 핀다는 의미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남녀 간의 사랑과 만남이 이루어짐을 연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시된 글에서는 성기와 계연의 사랑이 인륜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결말이 지어져 있다. 또한 옥화 등 다른 인물들의 사랑도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이런 점들로 보아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등장인물 간의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장터'는 그 속성상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 ③ 옥화가 태어나게 된 옥화 어머니와 체 장수 영감과의 만남은 '서른여섯 해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성기와 계연의 만남은 현재의 상황이다. 두 사건은 결국 시간적 간격을 뛰어넘어 인과적으로 맺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소설에 제시된 배경의 기능 중 하나가 작중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음에 착안하면, 주인공 성기가 정처 없는 길을 떠남으로써 활기찬 마음을 갖게 되는 대목에서는 운명과의 갈등이 해소되는 분위기에 맞는 밝고 싱그러운 분위기의 배경이 필요하다.
- ⑤ 길을 떠난 성기의 입장에서 '화개골 쪽' 길은 그의 집 방향이므로 애초에 선택지가 되지 않고 계연이 떠나간 '서남으로 난 길'을 선택하는 것 또한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기가 나머지 한 길을 선택한 것은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세 갈래의 '길'은 선택의 대상이 되는 '인생길', 또는 '삶의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5. 다른 상황에 적용 [정답] ②

<보기 1>에서 옥화가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찌겠냐."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성기를 바라보는 옥화의 안타까운 심정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옥화의 심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 ① [A] 부분과 <보기 1>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별다른 내용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 ③ <보기 1>에서 두 차례 말줄임표로 표현된 부분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④ <보기 1>의 '외조부', '내 배다른 동생' 등의 표현이 혈연관계를 나타낸다.
- ⑤ <보기 1>에서는 배우들이 상황에 어울리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지문을 통해 인물의 동작이나 어조 등을 지시하고 있다.

36. 소재의 기능에 대한 이해 [정답] ④

성기의 유랑 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옛판'에 들어 있는 '이야기책'은 그 기능 면에서 '옛판'과 다르지 않다. 또한 제시된 부분은 작품의 결말이라는 점에서 '인물 간에 벌어질 새로운 사건의 방향'을 예고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떠나지 말라는 말을 기다리더라도 하듯 성기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상기된 얼굴이나, "오빠, 편히 사시오."라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은 성기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계연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성기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옛판 하나만 맞춰 주."라고 말한 것은 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 말을 성기는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켠 이후 선언하듯이 말하고 있다.
- ③ 떠도는 삶의 길을 택한 성기에게 있어 '옛판'은 그러한 떠돌이 삶을 암시해 주는 도구 역할을 한다.
- ⑤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성기의 모습이 좌절된 자의 처량하고 구슬픈 모습이 아닌, 흥겨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자신의 떠돌이 운명을 수용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인륜의 굴레를 수용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떠나는 성기의 마음가짐은 그가 흥얼거리는 육자배기 가락의 콧노래를 통해서 형상화된다.

[37~39] (고전 시가)

(가) 이색, 「부벽루」
고려 말의 문인이었던 이색이 옛 고구려의 유적지인 부벽루에 올라 과거 왕조를 회상하며 읊은 5언 율시의 한시이다. 평양의 부벽루에 올라 지난날 찬란했던 동명 성왕의 업적을 회상하며 현재 텅 빈 성만 남아 있는 현실에 애통해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자연의 영원함과 대비되는 인간 역사의 유한함을 자각하고 고려의 기상이 회복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엿보인다.

(나) 정철, 「속미인곡」
형식상 3·4조, 4·4조의 연속체로 전개되는 가사 작품으로, 두 여인 간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말 구사가 매우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가사 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이다. 임과 이별

한 뒤 그리움과 걱정으로 지내는 여인의 절절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정적, 애상적 분위기가 잘 드러난다. 임금을 이별한 입으로 설정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간절하게 표출하고 있는 충신연주지사이다.

37. 표현상의 특징 이해 [정답] ⑤

(나)는 두 명의 여성 화자가 등장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는 화자의 독백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① (가)의 화자는 부벽루에 올라 무상함을 느끼고는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라며 자연의 영원함과 대비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휘파람 부노라니'에서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갓 말고', '므스 일고', '브라보랴' 등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산천이 어둡거나 일월을 엮다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브라보랴'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로 전개되는 대구법을 활용해 입을 걱정하는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38. 감상의 적절성 이해 [정답] ③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흐랴'에서 화자는 입과 자신이 헤어진 상황에 대해 어찌 하늘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있겠냐며 자책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유배를 당하게 된 일을 억울해하며 자신을 포함한 다른 신하들을 원망하고 있다고 한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39. 시적 공간의 이해 [정답] ②

㉠에 올라 화자는 그 주위를 돌아보고 과거 동명왕의 행적을 상기하며 현재 나라의 현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에서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① ㉠에서 화자는 외적 풍경을 조망하고 옛 고구려의 성터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과거 역사를 회고한다.
- ③ ㉡은 화자가 입을 그리워하여 소식이라도 알고 싶어 오르는 공간이다.
- ④ ㉠에서는 화자가 텅 빈 성을 바라보며 느낀 무상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에서 화자는 '구름, 안개' 등 입을 보려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들과 맞닥뜨린다.

[40~42] (극)

차범석, 「성난 기계」
이 희곡은 물질 중시 풍조에 의한 현대 사회의 인간 소외 현상과 그로 인해 비인간화된 세태를 고발한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이다. 주인공 회기는 성공 전망이 불투명한, 더구나 가난하기까지 한 환자의 수술을 했다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꺼려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의 폐 수술을 냉담하게 거부하는 비정하고 기계적인 성품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작품 후반부에서 자기 아내를 죽게 내버려 두라는 상현의 비윤리적인 요청을 받아 회기의 가슴 속에 내재되어 있던 인간성이 작동하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결국 이 작품은 주인공의 기계적인 삶의 태도가 더욱 저열한 인간형을 만나 새로운 인간형으로 거듭나는 과정

을 통해 물질문명으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을 휴머니즘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 의식을 보여 준다 고 할 수 있다.

40. 인물의 태도 파악 [정답] ①

상현은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오?”,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아내가 죽어 가도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등 회기의 거듭된 추궁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별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내 처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무슨 걱정이오! 나 살고 남도 있지!” 등 냉혹하고 비정한 말을 태연스럽게 하고 있다.

41. 인물의 심리 추리 [정답] ①

금숙은 앞부분의 줄거리에 나타난 바대로 책임지기 어려운 수술을 기피하는 회기의 태도에서 그녀 스스로 '기계'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비인간적인 모습을 느꼈었다. 그러던 회기가 상현과 부딪치면서 평소와는 달리 환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을 보고 ①과 같이 새삼스러운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42. 구체적 상황에 적용 [정답] ④

㉢의 앞뒤에 제시된 금숙의 태도로 보아 ㉢의 '예'는 그녀가 회기의 의도를 이해한 반응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의 '예'는 인옥의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갑작스레 바뀐 회기의 태도에 대해 의문스러워하는 금숙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뒤에 이어지는 회기의 발언 내용으로 보아 ㉢는 자신 없어 보이는 태도라기보다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금숙에게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는 회기에 대한 자신의 신뢰가 확고한 척하는 표정이 아니라, 회기가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는 데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아야 한다.
- ③ 뒤에 이어지는 발언 내용으로 보아 ㉡는 상대의 물음을 받아 그에 답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 ⑤ 뒤에 이어지는 회기의 발언 내용은 상대가 듣지 못하도록 조심해서 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43~45] (현대 시)

(가) 조지훈, 「동물원의 오후」
동물원을 배경으로 하여 나라를 잃은 시인의 비애를 담아낸 작품이다. 화자는 입어 줄 사람도 없는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다. 화자는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동물원을 찾지만 오히려 동물원에서 철책에 갇혀 있는 것이 동물들이 아니라 자신임을 자각한다. 나라를 잃은 시인으로서의 처지를 절실히 느낀 것이다. 이로 인해 화자는 결국 참담한 심정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심정은 '통곡(痛哭)과도 같은 낙조(落照)가 물들고 있었다.'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나)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애국가를 경청해야만 했던 1980년대의 현실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화면 속에 나오는 새들의 비상을 보면서 화자는 새들이 이 세상 밖 어디로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우리'도 새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밖 어디로 떠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낸다. 하지만 화자는 그럴 수가 없음을 알고 이내 체념하고 절망한다. 이러한 모습은 획일화된 질서로 자유를 억

압했던 1980년대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43.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③

(가)에서는 동물원이라는 특정 공간에서의 체험을 통해 화자가 떠올린 상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영화관이라는 특정 공간에서의 체험을 통해 화자가 떠올린 상념을 제시하고 있다.

- ① (가)는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과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준다고 보기는 힘들다. (나) 역시 부정적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체념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 ② (가)는 동물원에서 화자가 체험한 것과 그에 따라 떠올린 상념을 주로 현재형을 사용해 제시하고 있다. 과거 회상은 찾아볼 수 없다. (나)에서도 과거 회상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가)와 (나)에서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⑤ (가)에는 외부 세계와 화자의 내면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나)는 시상이 외부 세계에서 내면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44.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감상 [정답] ④

'이방의 짐승들이 들여다본다'는 동물원의 쇠창살 밖에 있는 화자가 오히려 자신이 쇠창살에 갇혀 있다고 느낀 것을 표현한 것이다. 쇠창살로 만들어진 우리에 갇혀 있는 것은 '이방의 짐승들'인데, 오히려 '이방의 짐승들이' 갇혀 있는 화자 자신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이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 현실 속에서 마음대로 시를 쓰지 못하는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화자의 고뇌가 화자 주변 존재들의 관심에 의해 해소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 ① '뺨을 부비며 울고 싶은 마음'은 화자가 '사람으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화자의 비애감이 매우 큼을 보여 준다.
- ② '혼자서 숨어 앉아 시를 써도'는 화자가 일제 강점기라는 마음대로 시를 쓸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다.
- ③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 ⑤ '통곡과도 같은 낙조가 물들고 있었다'는 통곡하고 싶은 화자의 참담한 심정을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을 동원해 나타낸 것이다.

45. 시구 간의 관계 파악 [정답] ⑤

스크린 속에서는 '삼천리 화려 강산'과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는 '흰 새 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반면에 화자는 애국가를 경청하며 스크린을 보고 있는데 애국가가 끝나자 '자기 자리에' '주저앉'고 있다. 이렇듯 '주저앉'는 화자의 모습은 애국심을 강제로 요구하는 획일화된 현실 속에서 화자가 체념하고 절망했음을 보여 준다. 화자는 '이 세상'을 '흰 새 떼들'처럼 벗어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시에서는 이러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부각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주저앉'는 화자의 모습과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는 '흰 새 떼들'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기 때문이다.